

그래도 송년회는 새해 희망의 다리를 놓았다.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비운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SBS를 함께 일구어 온 사우회 가족 여러분, 시대의 변화 앞에 불안하거나 걱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SBS가 한 발 더 나아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2017년 사우회 송년회에서 SBS 박정훈 사장이 윤세영 회장을 대신해 전한 격려사다. 지난해 12월 4일 마포가든 호텔에서 프랜차이즈 아나운서 김성경 사우의 사회로 열린 SBS 사우회 송년회는 160여명의 사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사의 변화를 인식하며 차분하게 송년의 밤을 밝혔다. 이날 김수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매년 송년회장을 빛내주신 윤세영 명예 회장과 신영균 명예 고문이 함께하지 못한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는 아쉬움을 피력하면서 지난 4년동안 대과없이 사우회를 이끌 수 있게

밀어준 사우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회장은 올 3월에 출범하는 3기 집행부는 젊은 패기와 의욕으로 사우회를 더 발전 시켜나갈 수 있게 사우들의 끝없는 성원을 당부했다. 또 이날 송년회서는 본사 라디오 센터 정태의 센터장이 창사 27년 만에 라디오사상 최고의 광고 판매를 기록 하는 등 라디오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올해를 빛낸 SBS맨으로 사우회 박 총 사가 올해의 사우상을 각각 받았다. 이어 정상일 사우가 연출한 2부 축하행사는 SBS 아나운서 출신 성악가 스포트라노 윤지영 사우와 종편 팬텀싱어 프로그램에서 유명세를 떨친 SBS 스포츠 안현준 아나운서의 중창 무대와 박영호 최상담 사우의 색소폰 연주로 송년의 밤을 무르익게 했다.

<레드 카드>

NO SHOW는 생소(?)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에 예약하고 핑크를 내는 고객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이른바 NO SHOW가 만나라 이야 이야기가 아니었다. 바로 사우회 이야기였다. 지난해 12월 4일 사우회 송년회에 참석하겠다고 약속 해놓고 나오지 않은 사우들로 인해 사우회가 손해를 감수해야 했

다. 사우들의 참가 숫자에 비례한 음식 계산법이 아니라 미리 예약한 숫자에 따른 지불 방식이었기에 남은 음식은 아깝게 버려야 했고 계산은 계산대로 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그 금액이면 동호회 지원에 보탬이 되었을 텐데 헛돈을 날린 셈이 되었다.

<송년회 화보>



<새해 스포츠 단상> 글 / 이재명 사우

뜨거운 밤이 되어라!

1988년 9월17일 잠실 올림픽 스타디움, 한 소년이 굴렁쇠를 굴리며 경기장을 정적으로 감동케 하고 사라졌다. 2018년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장. 색동 한복에 토끼털 귀마개를 쓴 한 소년이 앙은뱅이 썰매를 타고 대관령 고원을 가로질러 사라질 즈음 한 청년이 썰매를 타고 소년의 뒤를 따라가며 오버랩 된다. 그 청년은 바로 88올림픽 굴렁쇠를 굴린 소년이었다. 올 2월의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나름대로 상상해보았다. 2018년 6월 18일 밤 러시아 니즈닌노브고로드 스타디움에서는 한국대 스웨덴의 월드컵 첫 경기의 시작을 알리는 휘슬이 울린다. 올해는 동계올림픽과 월드컵이 열리는 해다. 몸은 스포츠 현장에서 떠나 있어도 아직도 마음은 그곳에 머물러 있는가 보다. 올해 2개의 글로벌 빅 스포츠 행사를 앞두고 국내 방송사는 시청자들에게 첨단 중계 기술로 스포츠의 역동적인 감동을 어떻게 전달할까라는 고민보다 적자 줄이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천정부지로 뛰는 중계료에 광고가 땅을 치지 않은 금역이었다. 그 금액이면 동호회 지원에 보탬이 되었을 텐데 헛돈을 날린 셈이 되었다.

고 있는 입장에서 부담은 크기만 하다. 무슨 공여지책이 없을까? 우리 선수들의 활약이 유일한 해답이 아닌가 싶다. 김연아 버금가는 피겨 요정이 나타나고 쇼트 트랙은 남녀 전 종목이 금빛 질주를, 봅슬레이, 스켈레톤 등 말모단 들어왔던 썰매종목에서 경이적인 결과로 동계 올림픽이 뜨겁게 달아 올라 6월 러시아 월드컵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다. 방송은 국민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게 먼저일 것이다. 방송은 88올림픽과 2002 월드컵을 앞두고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다. 기껏 하면 오른쪽 상단에 평창 올림픽 D day 표시로 관심을 끌 수 없다. 요즘 방송은 연예인 총동원령 내린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도 올림픽 빅 조서 프로그램은 없다. 지금 그 때와 방송 환경이 다르기는 하지만 결국 방송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국민들의 냉정한 관심을 녹인다면 분위기가 호전 될 것으로 본다. 평창 동계 올림픽 열기로 대관령 한파 녹이고 월드컵 축구, 응당하라! 2002년의 미자부가 재현 되어 광고가 완판이 되었다는 뉴스를 듣고 싶다. 스포츠 중계방송이 어쩌서 찬밥인가? 스포츠 중계방송은 김이 모락 나는 뜨거운 밤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8 동호회는 바쁘다.



- ▲ 음악감상 동호회 회장 최경수/총무 강동하 - 올해는 그동안 한번도 마련하지 못한 국악공연 감상 기회를 자주 가질 예정이다. 또한 차 한 잔 마시며 편안한 들을 수 있는 노래를 선곡한 "차여시리즈" 61집 ~ 70집 까지 배포할 계획이다. 그리고 그동안 안 호응이 좋았던 트로트가요와 "막걸리 특집 4탄" 중국 전통가요 위주의와 짜장면 시리즈 특집 2탄을 실시할 예정이다.
- ▲ 골프 동호회 회장 이은범/총무 송호석 - 지난해 상황을 이룬 사우회장에 골프 대회 기를 받아 올해도 정기 라운딩과 특별 행사를 갖는다. 3월 시즌 오픈을 시작으로 8월 휴스기 제외, 11월까지 8회 라운딩을 펼친다. 장소는 예년과 같이 이천 아리지 CC이며 일정은 매월 넷째주 화요일이다.
- ▲ 여성 동호회 회장 김혜리/총무 정윤정 - 지난해까지 여성동호회를 이끌어 온 변순복 회장과 이영혜 부회장의 수고에 감사의 드린다. 올해 여성 동호회는 1차적으로 사우회 여성 사우들의 참여를 배가 시키기 위해 만남의 행사를 자주 가질 계획이다. 그동안 계획만 세워 놓고 실천으로 옮기지 못한 여성 교양강좌와 취미교실을 연다.
- ▲ 수목화 동호회 회장 변장부 - 매주 화요일 사우회 사무실에서 목향기를 맡는 것은 불변이다. 회원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게 고무적이다. 올해는 인사동에서 열리는 수목화 전시회 관람을 자주 가져 안목을 넓힐 계획이다. 또한 서울근교의 풍광이 뛰어난 산과 강을 찾아가 야외 스케치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 ▲ 당구 동호회 회장 박찬근/총무 김명식 - 올해도 예년과 같이 매월 정기 모임을 갖고 수시로 번개 모임을 갖는 계획을 세웠다. 사우회장배 당구대회 규모를 확대해 많은 사우들의 참여 기회를 주고 초보 회원들의 기량연마를 위한 프로선수 초청 교육을 추진하고 국내에서 열리는 프로 당구대회 관람을 통해 당구의 묘미를 즐기고 기술 향상 시킬 계획이다.
- ▲ 요산 이수회 회장 박건삼/총무 성준호 - 올해도 역시 매년 갖는 철원 한탄강 트레킹으로 첫 행사를 시작 한다. 매월 갖는 트레킹은 서울과 경기도 일원에서 가질 계획이다. 강화도 둘레길, 남한산성 둘레길, 제부도 둘레길 등이 대상 지역이다. 또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1박 2일 여정의 지방 나들이 트레킹도 계획하고 있다.

- ▲ 문화예술 동호회 회장 김세용/총무 김광진 - 올해 영화감상 일련도를 탈피해 격조 높은 예술공연과 전시회 관람에 중점을 둔 행사를 많이 가질 예정이다. 또한 역사 탐방도 몇 차례 실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유서 깊은 문화 유적지를 답사하고 기행하는 기회를 마련해 회원들의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우리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아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다.
- ▲ 바둑 동호회 회장 윤충의/총무 박오중 - 올해도 3회 정기 바둑 대회를 연다. 4월 춘계대회와 9월 사우회 창립 기념대회 11월 추계바둑대회를 통해 회원들의 기력향상과 친목을 다진다. 지난해 잠정 중지된 방송3사 바둑대회 부활을 추진 하고 고수를 초청해 지도 다면기 대국도 추진할 계획이다.

<나훈아 콘서트 연출기> 글 / 차성모 사우

歌皇 羅勳兒!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우리 안에는 늘 새로워지려는, 다시 생기를 얻으려는 본능이 있다.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자기 안에서 깨우려는 본능이 있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아 회복의 장소를 찾고 있으며, 삶에 매몰되어 가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치유하고 온전해지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삶에는 힘든 순간들이 있다. 그 순간들을 피해 호흡을 고르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부정적인 감정들로 마음이 파헤쳐질 수 있다. 혼자 걷는 길은 없다. 사람은 누구나 일과 관련된 과거, 현재, 미래의 존재들과 연결되고 그와 연결된 모든 존재들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가는 존재 인가보다. 羅勳兒! 그 걸출한 슈퍼스타는 10여 년의 공백 기간을 마치고 올 봄 새기의 기회를 다지고

있다가 지난해에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이미 수많은 곡들을 준비해 놓았고 그동안 발성과 운동을 게을리 하지 않아서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첫 인상은 과거의 그를 되살리기에 충분하다는 기대를 갖게 했다. 새로 설립한 기획사 대표는 신곡녹음과 발표절차 등을 진행했고, 나는 7월부터 대표신곡의 뮤직비디오 제작을 관리하면서 공연준비에 들어갔다. 공연의 기획과 연출은 羅勳兒를 제일 잘 파악하고 있는 본인이 담당하고, 나는 공연 총 감독직을 맡아 구체적인 공연계획 수립에 들어간 것이다. 혼자 걷는 길은 없다. 그는 일과 관련된 과거, 현재, 미래의 존재들과 연결된다. 그와 연결된 모든 존재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이다. 과거에 같이 일했던 사장, 악단,

Staff 들을 다시 모아서 공연을 추진하고 신곡녹음, 공연계획 수립, 공연 프로그램 진행표 작성, 공연장 확보 등 모든 분야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방향한다고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모든 여행에는 자신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목적지가 있다. 그 많은 우회로와 막다른 길과 무너뜨린 상사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羅勳兒는 없을 것이다. 羅勳兒 씨는 늘 "우리는 프로다. 프로는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온 관객들에게 최대의 즐거움을 줄 의무가 있다. 그 방법은 최선의 연습으로 최고의 공연을 보여주는 것뿐이다"라고 말한다. 지난해 같이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선택한 것은 그의 탁월한 기량력과 노력, 그리고 끊임없는 열정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30년 전 KBS PD시절 처음 만난 후 SBS까지 여러 개 프로그램을 같이 하며 쌓아온 신뢰와 의리는 10여년의 공백 기간을 메우고도 남은 정도였다. 7월 "남자의 인생"을 타이틀곡으로 새 앨범을 출시하고 뮤직비디오를 제작할 때부터 관여하여 본격적인 공연 준비에 돌입하니, 그의 열정과 치밀함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며 악단, 무용, 합창, 조명, 음향 등 전 Staff를 동원하며 실시한 심여 차례의 연습은 수많은 공연경력을 가진 가수로서는 획기적인 일이었다. 그는 100%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120% 완성을 목표로 하고, 실제 공연에서는 최소 100% 완성을 추구하는 스타였다. 그를 알 만큼 안다고 자부했던 나로서도 새로운 그를 발견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羅勳兒! 그는 역시 트로트계의 歌皇이다. 그의 복귀 콘서트를 기다려온 팬들의 열광은 상상할 수 없었다. 11월 3일부터 3일간 올림픽홀의 서울공연은 대 성공을 거두었고, 부산과 대구 공연도 목적인 대로 대성황리에 잘 마무리 되었다. 羅勳兒는 기대하고 다시 찾아온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았다. 羅勳兒의 콘서트를 총감독하면서 나는 늘 새로움을 추구하는 슈퍼스타의 진면목을 보고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다. 歌皇 羅勳兒!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오직 미래만 보고 있었을 뿐이다.



www.mediacreate.co.kr (02) 6262 - 2800



혼자 가면 빨리 갈 수는 있지만 함께 가면 더 멀리 갑니다



모두와 함께 가는 미디어 세상- 미디어 크리에이티브가 만들어 갑니다. 단순한 매체 대행을 넘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미디어 서비스, 혁신형 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까지 고객과 방송사는 물론 시청자, 우리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따뜻한 미디어 세상을 열어갑니다.

Grow up together



미디어 크리에이티브는 국내 최초 민영 미디어랩으로서 TV를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바탕으로 최적의 미디어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경조사

축하합니다.

- 서득원 장녀(10/28)
- 정윤철 장녀(12/2)
- 홍성완 장녀(12/30)

애도합니다.

- 임응순 모친상 (11/10)
- 오종록 빙모상 (11/16)
- 박병권 빙모상 (11/22)
- 김익성 빙부상 (12/5)

◇ 회비내신분

연회비(10월~12월)

김은중 김일순 박상준 박수남 신영애 양승봉 우선균 이동훈

총신회비

김법주 김중혁 박영철 박재만 옥재석 이흥재 정근기 최용훈

◇ 회비안내

연회비 : 30,000원 총신회비 : 300,000원

우리은행 계좌번호
회비 납부 1006-901-277104
경조사납부 1005-101-255925
협찬회비 1005-001-954097

(총신회비로 납부시 연회비를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